

서울 경찰청 방문

경찰은 국민의 재산과 안정을 보호하는 버팀목입니다.

경찰이 너무 수고합니다. 내년 예산 뺄뺄해서 힘들었는데 내년에 다시 보고 해소할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이런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1년도 안됐는데 개혁 과제가 너무 많아 한 번에 끝낼 수는 없습니다.

개혁하라고 몰아 부치지 않는 데가 경찰입니다. 법무부는 착실하게 개혁하고 있고 행자부도 난리났습니다. 경찰은 보도에는 부정적 이미지 많이 나오지만 구조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직문화의 잔재로 보고 따로 재촉하지 않습니다. 잘 하리라 봅니다. 수고하는 만큼 위상 강화하고 일할 수 있는 여건 갖추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경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절에 쉬지도 못하고 치안을 유지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요즘 고생이 많습니다. 불안 원전 수거물 관리 센터 문제도 있고 얼마 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문에도 고생 많았습니다. 또 화물연대 파업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고생 덕분에 치안이 안정되고 국민이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경찰이 스스로 다짐하듯 경찰은 국민의 재산과 안정을 보호하는 울타리이자 버팀목입니다. 추석, 다들 고향에 가는데 추석 기분 내기도 어렵겠지만

덕분에 국민들이 고향에 갈 수 있습니다. 보람 있는 일입니다.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대통령은 여러분 믿고 있고 국민들도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람과 사명감 갖고 수고해주십시오.